

가정 예배 모범

- 2020_09_13_장기중앙교회

매일성경 9월호 가정예배_성서유니온 선교회 홈페이지 자료실

▶ 함께 함께 기도 (예배를 시작하며 기도문을 읽습니다)

=> 미움으로 인해 깨지고 무너진 관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 안의 죄를 고백하오니 깨진 관계들을 다시 회복시켜주소서.

▶ 함께 찬양 (가족 모두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 함께 읽기 (주일 본문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습니다)

=> 창세기 44:1-17

▶ 함께 묵상 (질문을 따라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1)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잔이 자신들의 집에서 발견되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것은 요셉이 처음 꾸었던 꿈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37:5-11)?

요셉의 형들은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두려워하며 엎드립니다. 요셉이 소년 시절에 꾸었던 벋단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꿈이 이루어져 가도록 그의 전 생애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분입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내 뜻을 성취하려고 애를 쓰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족이 지금 어떤 순간을 지나고 있던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2) 요셉이 잔에 대해서 추궁하자 유다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와 같이 대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16-18절)?

요셉의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오자 유다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라고 고백합니다(16절). 유다는 깊은 죄책감 속에서 그들이 요셉에게 저질렀던 악행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지금 그 죄를 심판하고 계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알고 계십니다. 인간이 범죄한 사실을 애써 숨기려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그분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양심을 무디게 하는 자들은 결국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죄들을 솔직히 회개합니다.

▶ 함께 나눔 (한 주간의 일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